제4강 돈의 철학

1. 외상의 불가능

1.1 도시와 돈

◇ "우리는 모든 특정인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다. 바로 이런 관계가 강력한 개인주의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그들과 맺는 관계가,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맺는 관계가, 그리고 그들의 익명성과 그들의 개체성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이 모든것이 사람들을 상호 소외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외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특성을 지녔던 다른 시기들에 비해서, 오늘날 돈의 존재는 -근대에 대한 우리의 성격 규정에 상응해서- 인간의 객관적인 경제행위가 개인적 색채 및 고유한 자아로부터 더욱더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인간의 고유한 자아는 외적인 관계들로부터 물러나서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더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차원으로 회귀하게 된다."『현대 문화에서 의 돈』

◇ 도시에는 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있다.

→ 도시는 돈과도 같다.

◇"돈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인격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절대적으로 유보한 채 개인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르쳐주었다. (...) 따라서 설령 우리가 화폐에 의한 거래가 초래하는 분리와 소외에 대해서 한탄한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해 필연적인 대가로서 일정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받게 됨으로써 돈을 동일한 경제권의 구성원들을 매우 강력하게 연결시킨다. 돈을 직접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따라서 현대인은 고대 게르만 민족의 자유인이나 혹은 그 후의 농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공급자와 공급원에 의존한다. 그의 존재는 매 순간 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창출된 수백 가지의 결합관계들에 의존한다. 이런 결합관계가 없으면 현대인은 마치 체액의 순환이 차단된 유기체의 일부분처럼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현대 문화에서의 돈」

◇ 시골에서는 외상이 가능하다.

→ 개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외상의 전제조건)

◇ 익명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에서는 외상이 불가능하다.

→ 거지가 생긴다.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는 것이 불가능하다.)

◇ 우리는 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 돈과 능력의 관계

2.1 돈 → 개인주의

◇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

→ 돈의 맛을 알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 점원의 웃음은 나를 향한 건가? 나의 호주머니를 향한 건가?

◇ 도시에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 개인주의의 발현

◇ 울음을 참다가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린다.

◇ 왜 도시의 사랑이 강렬한가?

→ 고독의 강도와 비례

◇ "우리는 모든 특정인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다. 바로 이런 관계가 강력한 개인주의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그들과 맺는 관계가,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맺는 관계가, 그리고 그들의 익명성과 그들의 개체성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상호 소외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외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특성을 지녔던 다른 시기들에 비해서, 오늘날 돈의 존재는 -근대에 대한 우리의 성격 규정에 상응해서- 인간의 객관적인 경제행위가 개인적 색채 및 고유한 자아로부터 더욱더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인간의 고유한 자아는 외적인 관계들로부터 물러나서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더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차원으로 회귀하게 된다."「현대 문화에서의 돈」

2.1 돈과 능력

◇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 "나는 추하다.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자를 사들일 수 있다. (...) 나는 절름발이다. 그렇지만 화폐는 나에게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나는 절름발이가 아니다. 나는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화폐는 존경받으며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 또한 존경받는다. 화폐는 지고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한다. (...) 인간의 속마음이 동경하는 모든 것은 화폐를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란 사람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의 화폐는 나의 모든 무능력을 그 정반대의 것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 돈은 신과는 또 다르다. 그것을 쓰는 순간부터 공허함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다.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768-1834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는 경건함, 곧 신에 대한 열망을 인간 영혼의 항구적인 상태로 만든 최초의 종교이다. 이에 반해서 그 이전의 신앙 형식들은 종교적 분위기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연결시켰다. 마찬가지 이치로, 돈에 대한 열망은 정착된 화폐 경제에서 인간의 영혼이 보여주는 항구적인 상태이다. (...) 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심층적인 본질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과 대립은 신을 통해서 통일성에 도달하게 되며, 또한 신은, 중세 말기의 저 특기할 만한 근대정신인 니콜라우스 폰 쿠사Nikolaus von Kusa, 1401-64의 멋진 표현을 빌리자면, 모순의 지양-또는 대립의 지양-이라는 사실 말이다. 존재의 모든 낯섦과 화해 불가능성은 신에서 통일성과 화해를 발견한다는 이 이념으로부터 평화, 안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도로 풍부한 감정이 유래하는데, 이 감정은 신에 대한 표상 및 우리가 신을 소유한다는 표상과 결부된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돈이 자극하는 감정들은 이것과 심리학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돈은 점점 더 모든 가치들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등가물이 됨으로써 아주 추상적인 높이에서 객체들의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을 초월하게 되며, 또한 아주 상반되고, 낯설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이 자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상호 접촉하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은 우리들에게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도록 해주며, 돈이 지닌 전능을 마치 하나의 최고 원리가 지니는 전능인 양 신뢰하도록 하는데, 이 원리는 언제든지 개별적이고 비천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돈의 소유가 허락해주는 안정과 평온의 감정, 그리고 돈에서 가치들이 교차한다는 확신은 순수하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이른바 형식적으로 보면- 돈이 우리 시대의 신이라는 탄식에 대해 심층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는 방정식이다."「현대 문화에서의 돈」